전주매일 CMYK

▶▶ 매일 INDEX

2면
먹거리 선순환 체계 실현 선도 '첫 발'

전주매일

2023년 6월 15일 목요일 (음 4월 27일) 제3284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곽경문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새만금 YES! 특화단지 OK!' 전북도가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도내 대학생들의 움직임도 잇따르고 있다. 국립군산대학교는 14일 대학 본부 앞에서 제39대 한빛 총학생회 주최로 이차전지 특화단지 전북유치 및 글로컬대학30 성공유치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고 이차전지 특화단지 새만금 유치를 염원하고 있다.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 '배수진'

내달 전담팀 신설… 초격자 기술 확보 본격 돌입
서울대 인력 기반 상용화 기술 공동연구 등 추진

전북도가 이차전지 전담팀 신설,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5대 상용화 핵심센터 본격 추진, 이차전지 기업 역량강화 지원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

전북도는 오는 7월 미래산업국 미래산업과 내에 이차전지 전담팀을 신설해 이차전지 산업 육성을 위한 조직 기능을 강화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사업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팀 신설과 함께 이차전지 초격차 기술 확보에 본격 돌입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핵심인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차세대 이차전지 솔루션센터 등 5대 상용화핵심센터 구축을 추진한다.

지난 4월,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차세대 이차전지 솔루션센터 협약을 맺은바 있으며, 5월에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과 중대형 배터리 신뢰성·안전성 검증센터, 전기안전공사와 사용후 이차전지 센터 구축을 통한 공동연구 수행을 약속했다.

차세대 이차전지 솔루션센터는 전고체 전지 등 미래 핵심소재의 연구개발과 기술상용화를 수행한다.

중대형 배터리 신뢰성·안전성 검증센터는 화재에 취약한 이차전지 성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며, 사용후 이차전지 센터는 이차전지 생산에서 활용에 이르는 전주기 과정의 안전성 확보 기술 연구를 중점 추진한다.

오는 26일 전북도청에서 서울대학교 R&DB센터 분소 설치를 위한 협약도 체결할 계획이다. 도는 서울대학교의 우수한 인력을 기반으로 이차전지 상용화 기술 공동연구와 함께 글로벌 인력양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차전지 기초 물성과 실시간 반응을 분석하는 실시간 고도분석센터 건립을 위한 국비 확보도 진행중이다. 실시간 고도분석센터는 2022년 최고과학기술인상, 2023년 삼성호암상 공학상을 수상한 한양대학교 선양국 교수와 함께 추진중이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지난 5월 산업부 장관을 직접 만나 이차전지 분야의 한국형 IMEC인 고도분석센터 구축을 건의했다.

전주기 기술개발(R&D) 지원 등을 위한 전북민의 차별화된 지원도 추진한다.

도는 지난 5월 추경예산에 이차전지 기술개발(R&D) 지원, 기술개발 사업화 지원 등을 위한 이차전지 기업 역량강화 사업비 15억원을 확보했다.

도의 행·재정적 역량 결집과 함께 지난 5월 정세균 전 국무총리를 명예위원장으로 출범한 이차전지 특별위원회와 전북 실행위원회를 중심으로 도민들의 간절한 염원도 확산되고 있다.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 염원 500만 전북인 결의대회에는 전북도민 1,000여명이 결집해 새만금에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반드시 유치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도내 대학생들을 비롯한 청년들의 움직임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7일 전북대학교와 원광대학교 학생들이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 결의대회를 개최한데 이어 14일에는 군산대학교에서도 300여명의 학생들이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를 위한 결의를 다졌다.

전북도 오택림 미래산업국장은 "전북은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를 위해 500만 도민의 염원을 품고 숨가쁘게 달려왔고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는 각오로 배수진을 쳤다."며 "이차전지 전담팀이 신설되는 만큼 보다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새만금이 세계적인 이차전지 소재 공급기지이자 이차전지 초격차를 실현할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인 이차전지 특화단지 공모를 진행중이며 최종 결과는 7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여름철 강우·폭염 대비 '안전 새만금잼버리' 추진

도, 이달부터 매주 준비현황 현장점검 나서기로
3개 서브캠프 내부배수로 등 설치 이달 말 완료
덩굴터널 2배로 확장하는 등 폭염 대비시설 보강

전북도는 안전하고 성공적인 세계잼버리 개최를 위해 6월부터 매주 폭우·폭염 대책 및 해충예방, 프로그램 등 준비현황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엘리뇨 영향으로 7~8월에 많은 양의 강우와 폭염 등에 대비해 안전한 잼버리를 위한 철저한 사전준비를 실시할 예정이다.

폭우와 관련 지난달 5~6일, 27~28일 폭우로 인해 잼버리 부지가 침수돼 관계기관 및 전문가 대책회의 결과 기관별 역할분담과 강제배수시설을 설치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전북도에서는 22개 서브캠프에 30m~40m 간격의 내부배수로와 간이펌프장 100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지난 6일 착수해 3개 서브캠프 내부배수로와 8개 서브캠프에 간이펌프장 30개소를 설치했고 이달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당초계획에 따라 외곽배수로(총 18km) 정비와 함께 조사료 식재를 지난 3일 착수해 80%이상 추진하고 있다.

조직위원회에서는 델타구역 및 서브캠프내 화장실, 샤워장 등의 주요진출입로 쇄석포장과 이동형준설차를 확보해 폭우시 즉각 대처할 예정이다.

도와 한국농어촌공사는 배수시설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시험가동 등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으로 배수시설을 보완해 폭우시 잼버리부지 침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전북도는 폭염에 대비해 무더위 휴식공간 및 교류공간 제공 등 다목적 활용을 위해 잼버리 부지 순환도로에 설치하기로 한 덩굴터널을 당초 3.7km에서 7.4km로 2배 늘리고, 터널 내부에는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4억원을 확보해 안개분사시설을 설치(7월 중 완료예정)하는 등 폭염 대비시설을 보강하기로 했다.

조직위원회에서는 각 서브캠프에 그늘제공을 위한 대형천막(21동)과 텐트(1,800개) 설치 및 대형선풍기를 비치하고 화장실, 샤워장에 에어컨을 설치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폭염에 대비하는 한편, 안전한 잼버리 개최를 위해 잼버리 부지에 잼버리병원(1개), 클리닉(5개), 응급의료소(5개) 운영과 인근지역에 폭염대피소(7개), 실내구호소(341개)를 지정해 만일의 비상사태에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협력병원 4곳(원광대병원, 전북대병원, 전주병원, 군산의료원)를 지정해 온열환자를 포함한 중증·응급환자 진료 등 포괄적 협력을 통해 잼버리 의료체계 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조직위원회, 부안군, 새만금청 등에서는 모기, 야생진드기 등 해충방제를 위해 지난 3월부터 '해충방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7월까지 영지내 유충방제와 유문등을 설치하는 등 해충방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조직위에서는 6~7월 3회에 걸쳐 영지 내 유충 방제, 7월 연막 방제, 포충기(220개) 및 유문등(50개) 설치하고 환경청에서는 영지와 인접해있는 생태단지 연막방제를 7월에 추진하고, 부안군에서는 지난 5월부터 영지 인근 축사(50개) 유충 구제와 유문등(100개) 설치, 영지 인근 하천 4개소를 정비 중에 있으며, 새만금개발청과 전북개발공사에서는 참가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개인용 해충기피제를 후원(6,000만원)할 예정이다.

황철호 전북도 자치행정국장은 "잼버리 개최전까지 폭우와 폭염, 해충방제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잼버리 준비상황 전반에 걸쳐 매주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철저한 대비로 안전한 잼버리 개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세요.